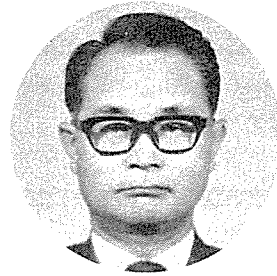


# 漢陽工大 建築工學科 主任教授 咸性權氏



3月 19日 午後 2時

漢陽工大 建築工學科 主任教授室을 녹크했다 바쁜 일손을 멈추고 반가이 맞아 주는 함 선생님은

咸: '내가 건축을 전공한 원인은 기계나 전기는 숨 쿵딱하고 살벌한 맛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건축은 예술적이며 독창적인 내 나름대로의 의욕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니 지금도 내가 건축을 전공한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...'

編: '현재 슬하엔...'

咸: '노년기에 접어든 건축인 중에서 자녀가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나일거예요 핫핫... 지금 내 나이가 54인데 10년전에 사위를 봤단 말예요 현재 자그마치 자부가 세 사람에요 외손 직손 합해서 일곱명이나 되니 집에 들어가면 손자들과 어울려 노는게 여간 즐겁지 않거든요 핫핫핫...'

編: '사모님과 결혼은...?'

咸: '우리집 사람이 나보다 한살 위인데 18세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부모님들은 무척 반대를 했는데 내가 우겨서 자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쩐 영문인지 요즘은 나보다 7~8세나 더 젊어 보인단 말예요 하.....'

編: '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...'

咸: '몇해 동안 과수임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역시 공부를 더 해야겠고 후배 양성에도 전제 없이 애착이 더 해져요 전에는 강의실에 들어 가면 말도 잘 안듣고 떠들면 화가 치밀어 소리도 뽕 질렀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한 나의 사명감과 의무감이 여간 중요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야겠죠.'

編: '본 건축사협회에 대해서 요망하고 싶으신 말씀은...'

咸: '회원 서로간에 사소한 문제를 떠나서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서 단합이 더욱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사의 사명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현재 일본이 G. N. P로 세계 3위의 강국이 되었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더욱 뭉쳐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면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겠지요'

바쁘신 중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